

과거를 위한 죄와 벌의 서사

—이기영의 『신개지』(1938)를 중심으로

노 연 숙*

요약

이 글에서는 이기영의 『신개지』를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시간성을 인물의 윤리적인 의식과 연계시켜서 살펴보고자 했다. 『신개지』는 죄의식과 수치심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식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는다. 죄의식을 짊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운명을 살았던 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자 한다. 작가는 계급성의 표출이 차단된 상황에서 작품의 윤리성과 이상성을 강화한다. 이를 보여주는 인물이 강윤수, 하월숙, 김순남이다. 이들은 금전이 지배하는 철의 시대에 맞서는 성찰의 시간, 속죄의 시간, 정지된 시간을 보여준다. 특히 순남이는 잃어버린 이름과 사랑을 찾아서 순결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 시도는 근대적인 시간의 질주 앞에서 지연되고 좌절되지만, 남은 자들에게 죄책감을 남긴다. 윤리적인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한, 그 누구도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신개지』는 과거를 위한, 과거를 지향했던 순남이를 위한, 순남이를 구하지 못한 윤리적인 인간을 위한 죄와 벌의 서사다.

주제어: 이기영, 『신개지』, 죄의식, 수치심, 무위의 시간, 속죄의 시간, 정지된 시간

*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목차

1. 『신개지』의 위치, 『고향』과의 지속과 단절 그 사이
2. 황금시대의 소멸, 상실된 고향과 수치심
3. 철의 시대에 맞서는 성찰의 시간
4. 미래를 위한 속죄의 시간
5. 뜻밖에 정지된 시간과 죄의식의 지속성
6. 결론

1. 『신개지』의 위치, 『고향』과의 지속과 단절 그 사이

『신개지』(1938)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고향』과 『인간수업』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¹⁾ 하지만 당시 기대 속에 대대적으로 광고되었던 것과는 달리, 그 결과는 『고향』에 미치지 못했다. 『신개지』는 『고향』과 같이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사가 주된 과업인 농촌과 다르게, 여러 공사(철도, 제방공사, 금광, 개간공사)로 개발되어 변모하기 시작한 신개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기영은 이 사실을 소설이 연재되기 전날 광고된 「작가의 말」에서 명백하게 하고 있다.²⁾ 이에 따르면 농촌의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신개지에서 벌어지는 신구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으며, 시기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유년기의 기억이 가미되었다. 실제 경험이 반영되다 보니 『고향』에 비해서 회고적인 경향이 강하며, 나중에 발표된 『봄』과 유사하게 겹치는 모티프(사금광 등)도 많다.

다만 회고와 관련하여 『신개지』의 특징이라면, 회고의 시간이 대부분

1) 이 글에서는 「신개지」(『동아일보』, 1938.1.19.~9.8.)를 인용할 때에 풀빛출판사에서 출간된 판본(이기영, 『新開地』, 풀빛, 1989.)을 활용하기로 한다. 인용 시에는 쪽수만 표기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이기영, 「작가의 말」(광고), 『동아일보』, 1938.1.18.

죄의식의 시간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행복한 시절보다 그 시절부터 존재했던 원죄에 가까운 죄의식을 자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기영이 『신개지』에서 표면적으로 신구의 대립을 내세웠으나, 그 대립적인 요소로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수치심과 죄의식을 다루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신개지』에는 사회주의를 대신하여 윤리성과 이상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치심과 죄의식을 다루는 서사적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가령 여담(전설)도 죄의식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주인공들은 수치심에 민감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속죄도 주저하지 않는다. 요컨대 이기영은 『신개지』에서 작품의 이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죄책감의 시간'을 삽입하여 죄와 벌의 서사를 직조해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과오를 용서하고 화합하는 장을 형성하여 도래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전환되기도 하며, 묵은 죄악을 은폐하고 질주하는 근대적인 직선적 시간을 멈춰 세우는 '정지된 시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³⁾

그동안 『신개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개진되었다. 초기에 『신개지』를 『고향』과 비교하여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면,⁴⁾ 후기에는 『고향』과 거리를 둔 시각에서 『신개지』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⁵⁾ 최근에는 주로 하감역과

3) 연속적이고 무한한 시간에 맞서는 '정지된 시간'에 대한 발상은, 조르조 아감벤(Agamben, Giorgio), 『유아기와 역사 : 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조효원 옮김, 새물결, 2010, 193면.

4) 김한식, 『이기영 장편소설 『신개지』 연구 : 고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김경원, 『『신개지』의 동장 체험과 리얼리즘의 성취』,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1992.

5) 김병구, 『이기영의 장편소설 『신개지』 연구』,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 언어학회, 2015.

김현주, 『장편소설 『신개지』의 실험적 기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김현주, 『창작배경 재조명을 통한 신개지 재고』,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3.

강운수의 대립적인 인물 구도를 벗어나 농민 전체의 연대 가능성을 논의하거나,⁶⁾ 『고향』과의 계보를 이어나가되 사회주의나 일제 말기라는 객관적인 정황에 구애받지 않고 노스텔지어라는 내재된 식민지적 욕망을 읽어가는 연구도 진행되었다.⁷⁾

특히 김철의 연구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간성고도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의 연구는 역사적, 정치적인 실증성을 떠나서 작품에 주안을 두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하지만 결국은 이기영의 소설이 문명 지향적이고 직선적인 시간관에 따르며 이광수적이라는 진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⁸⁾ 오히려 이기영은 끝없이 이광수와 거리두기를 했다. 이는 그가 톨스토이적(종교적)이라기보다 투르게네프적(비종교적)이라는 점,⁹⁾ 투르게네프에게 충격을 받고 그의 이상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기영은 인물 창조와 관련하여 이상화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상화는 그가 『고향』을 비롯하여 『신개지』에 이르기까지 화두로 삼았던 창작과제였다. 그는 『고향』의 평가와 관련하여, 갑숙이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패한 주인공이라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실패한 주인공이라 한 것에는 주변인들의 비판에서와 같이 비현실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투르게네프의 『처녀지』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상화에 비하여 그 이상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기영은 이상화와 관련하여 투르게네프의 『처녀지』에 나오는 솔로민을 강조한다. 이기영은 독자로서 투르게네프가 그려낸 이상화에 놀랐음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갑숙이를 악한 인물에 맞설 수 있는 헌신적인 순백의 천사 이미지—“순진 고결한 이상적 성격”—로 일부러 이상성을 덧대

6) 황지영, 『식민권력의 외연과 소문의 정치』,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13.

7) 김철, 『프로테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한국문학연구』 (제3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8) 위의 논문.

9) 이반 투르게네프(Turgenev, Ivan Sergeevich), 『처녀지·루딘』, 김학수 옮김, 범우사, 2001.

고자 했던 의도를 감추지 않는다. 여기서 악한 인물이란 상생과 공존의 개념이 결핍된 유산계급을 표상하는 안승학이다.¹⁰⁾ 『고향』은 선악의 대립구도가 명확하고 공장파업과 소작쟁의라는 계급문제가 전면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요컨대 이기영은 시대에 부합하는 소설의 요건으로서 계급성과 윤리성 그리고 이상성을 종합해서 『고향』에 녹여냈다.

반면에 『신개지』에는 김희준과 같은 인물이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를 대신하는 인물로 제시된 강윤수는 농민계급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보적이다. 또한 갑숙과 유사한 월숙은 갑숙이가 안승학에게 적대적으로 대항했던 것과 다르게, 안승학에 상응하는 하급역을 설득해서 본인이 바라는 대로 가정의 풍파를 막는 일에만 일조한다.

게다가 초반에 출소한 윤수가 귀향하여 무엇인가 사건을 만들 것만 같은 독자의 기대와 달리, 별다른 사건이 없이 진행되어 그 긴장감이 점차 약해지면서, 후반부는 월숙과 순남(금향)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애정서사로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보면 『신개지』는 이기영의 문학사에 오점을 남긴 졸작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일제의 통치가 심화된 와중에 연재되었다는 점, 일제에 대한 저항이나 지주에 대한 대항의식 등의 계급 문제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친일적이라는 혐의를 받기도 쉽다.¹¹⁾ 기존의 평가대로 『봄』과 함께 친일적이며 퇴행적인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면 『신개지』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기영의 창작 의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기영은 계급 간의 대립을 ‘신구의 대립’으로 대체한다. 이는 동일한 계급 내에서의 균열과 반목을 의미한다. 하씨 일가와 유씨 일가가 대표적이며, 윤수와 순남이도 서로 결탁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만다.

10) 이기영, 『『고향』의 평판에 대하여』, 『풍림』, 1937.1.

11) 이상경, 『이기영-시대와 문학』, 풀빛, 1994.

부르주아의 계열에 들어가는 하상오와 유경준은 일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재력과 계급의식의 차이로 갈등의 낙차를 좁히지 못한다. 프롤레타리아의 계열에 놓인 윤수와 순남이 또한 오해 속에서 연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못한다. 윤수는 노동자로서 노동의식을 갖지 못하고, 순남이는 연애감정에 매몰되어 정만 쫓다가 좌절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렇게 연대하는 계급성이 빠진 것은 검열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기영이 창작실험을 감행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기영은 계급성을 대신해서 투르게네프에게 감명을 받았던 이상화에 공을 들이기로 한다. 그는 창작된 여주인공에 대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집필 중인 『신개지』에서 금향이와 월숙을 이상적인 인물로 꼽는다.¹²⁾ 그는 갑숙이와 같이 비판 받았던 요소인 이상화를 의도적으로 살리고자 한다. 그러므로 작가가 생각했던 이상화가 무엇인지 『신개지』에서 그 이상성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금향이와 월숙의 비현실적인 행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 본고에서는 『신개지』에 나타난 수치심과 죄의식에 주목하여,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의 요건으로서 부각된 속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근대적인 시간에 맞서는 정지된 시간이 구현된 순간(뜻밖에, 불현듯)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 황금시대의 소멸, 상실된 고향과 수치심

『신개지』는 황금시대에서 철의 시대로의 전환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달내골에 울린 기차의 기적소리는 황금시대의 종말과 철의 시대의 시작을 알려준다. 황금시대를 짓누르고 등장한 철의 시대는 알려진 것처럼 폭력적이고 암울하다.¹³⁾ 철도가 몰고 온 근대적인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

12) 이기영, 『동경하는 여주인공』, 『조선지광』, 1939. 4.

13) 마르트 로베르(Robert, Marthe),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김치수·이윤옥 옮김, 문학과 지

을 침해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영원토록 노역해야 하는 노예로 바꾼다. 자연적인 시간이 우세했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리대로 운수와 순남이는 혼례를 올리고 일가를 이뤘을 것이다. 하지만 달내골에 철도가 들어오고, 가뭄이 지속되고, 물대기가 어려워지면서 물쌈이 나고, 사람이 죽고, 운수와 순남이의 황금시대도 끝이 난다.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황금시대였던 달내골 장터는 “역사의 옛 페이지”로 기록되고, 그 후에 등장한 철의 시대에 얽힌 “고해(苦海)”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품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달내골의 장터와 그곳에서 벌이를 했던 몰락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작가는 자식을 팔아야 할 정도로 몰락한 농촌 경제의 현실을 문제시한다. 농가의 처녀가 유곽의 여성으로 전락한 이야기는 식민지 자본의 침탈을 받은 농가의 전형적인 경로와 맞닿아있다. 하지만 이기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죄의식과 애환을 다룬다.

이기영은 첫 장부터 죄의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하감역이지만, 발화의 주체로 부각된 이는 김선여다. 김선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인 순남이를 유곽에 팔았다는 죄의식을 표출한다. 하지만 김선여는 염라대왕 앞에서는 당당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저 살기 위해서 자식을 팔았을 뿐, 남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먹기 위해서 자식을 판 자의 죄가 무거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먹게 하면서 돈의 축적만 하는 자의 죄가 무거운가를 묻는다.

달내골은 자본을 독식하는 자로 인하여 겉으로는 변화했지만 안으로는 피폐해지고 있다. 이는 하감역 이외에 모든 달내골 사람들, 심지어 삼한 갑족인 유씨 문중까지 몰락한 것으로 입증된다. 달내골은 개발이 되면서 계급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었다. 이 불균형은 외형적으로 재물 소유

성사, 1999, 176-177면.

의 불균형을, 내면적으로 죄의식의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최하층에 속하는 김선여는 염라대왕 앞에서도 당당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는 끝까지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강윤수는 또한 달내골의 마지막 처녀를 상징하는 순남이의 상실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는 돈에 예속된 근대적 시간을 가로질러 이와 대조되는 자연적 시간을 잘게 쪼개서 그 잔여물들을 윤수와 순남이에게 부여한다. 윤수와 순남이는 본래의 고향, 훼손되기 전의 달내골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달내골이 황폐화되기 전에 쫓겨났기에, 고향이 개발되기 전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지난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그것을 꿈속의 행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시절**이 올 리 만무하니까요. 참으로 그때 당신과 내가 **봄동산에서 놀던 것이** 나에게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조는 인용자)

윤수와 순남이가 공유한 고향의 기억은 봄동산의 추억으로 압축된다. 이들의 황금시대는 봄동산에서 순수하게 놀았던 시절이다. 봄동산에는 자기 처벌의 형식을 갖는 죄책감이나 타인이 부과하는 수치심이 자리하지 않는다. 봄동산의 시간은 아담이 에덴동산에 머물렀던 7시간에 가깝다.¹⁴⁾ 봄동산은 순진무구한 공간이면서 죄가 빚어진 장소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죄의식과 수치심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가난한 시골 청년인 윤수는 감옥으로, 가난한 시골 처녀인 순남이는 유곽으로 각기 비가역적인 시간 속에 갇히고 만다.

유곽에 갇힌 순남이는 윤수의 편지를 통해서 고향을 떠올린다. 고향의 그리움은 그 시절의 풍경을 눈앞에 그려놓는다. 작가는 황금시대와 같던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하면”으로 시작하는 회고의 시간(죄의식의 시간)으로

14) 조르조 아감벤(Agamben, Giorgio), 앞의 책.

바꾸어놓는다. 순남이는 어머니가 들에 나가고 없는 심심한 시간에 땅강아지를 잡던 생각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그놈도 남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그때 자기는 재미가 나서 다른 애들이 하듯이 노래를 부르며 땅가비를 놀렸다.”(138)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순남이는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순남이는 그 시절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 무지한 상태에서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 죄였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작가는 죄값을 치르면 용서가 가능하다고 본다.

여담은 서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연시키는 비이성적인 시간이다.¹⁵⁾ 이기영은 비교적 많은 여담을 수록해 놓았는데, 여담 중의 하나인 ‘삼선봉의 전설’은 죄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동무들을 죽인 신선은 결국 사랑도 얻지 못하고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하고 만다. 요지는 신선들도 ‘살벌적인 흉악한 꼴’(139)을 보였다는 것이다. 신비한 자연의 태초의 근원에는 무수한 죄악이 겹겹으로 쌓여있다. 전설을 담고 있는 자연적 시간은 이성과 법을 담고 있는 근대적 시간과 죄악의 면에서는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설에서의 죄악은 충분한 죄값을 치른다. 죄를 은폐하거나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근대적인 시간의 속박함은 권선징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죄 없는 이들이 벌을 받는 세계가 펼쳐진다. 하상오와 학생 어미의 악행으로 소작농인 춘성이가 화병으로 죽고 경후 모자는 부정한 부류라는 낙인이 찍혀서 괴롭힘을 당한다. 작품은 마지막까지 속죄하지 않는 하상오와 학생 어미를 통해서 개과천선이 이뤄지지 않는 세계의 적악함을 보여준다. 작가는 땅을 개간하는 것보다 악행을 개조하는 일이 몇 배나 어려운 일임을, 인과응보가 실현되는 세계는 전설이나 우화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일임을 말한다.

작품의 첫 장인 〈장날〉은 철도의 도입으로 사라진 달내골 장터의 풍경

15) 란다 사브리(Sabry, Randa), 『담화의 놀이들』, 이충민 옮김, 새물결, 2003.

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장터만이 아니다. 장날과 함께 달내골의 처녀였던 순남이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던 수치심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잇속을 밝히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일말의 수치심도 갖지 않는다. 돈만 있다면 허물도 쉽게 으깨될 수 있는 시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3. 철의 시대에 맞서는 성찰의 시간

철의 시대는 상징적인 아버지가 다스리는 시대다. 하감역은 달내골의 대부분의 땅을 사들이고 개간공사권까지 획득한다. 달내골은 하감역의 일인 통치를 받는데, 그의 실질적인 권력은 소작권에서 드러난다. 대다수가 소작농인 민촌 달내골은 땅의 소유자가 유씨 문중에서 하감역으로 바뀌자 그를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숭배한다. 달내골 사람들은 생존권인 소작권을 떼이지 않거나 얻기 위해서 수치심을 버리고 그에게 굴종한다.

예외적인 존재가 강침지인데, 그는 아내에게 고지식하다는 타박을 받는다. 남들처럼 닭이나 달걀 등 꾸러미를 가지고 잘 보이기 위한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랬던 강침지가 하감역에게 비는 순간은 아들 강운수가 유경준의 밀서를 전달하다가 들통이 난 일 때문이다. 강침지는 소작권보다는 운수가 전과자라는 점에서 무릎을 굽히고 만다.

운수는 감옥에서 췌값을 치르고 귀향했지만 달내골에서 여전히 죄인이다. 운수가 잡혀간 이후로 남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외지인처럼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가 돌아온 후에도 그 수모는 지속된다. 이는 윤섭이의 세계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윤섭이는 형이 돌아왔어도 마냥 기쁘지 않다. 아이들이 더 놀릴 것이 두렵기만 하다.

윤섭이는 아이들의 놀림보다 '정말로 형이 잘못된 건 아닐까'하는 수치심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고통받았다. 그래서 윤섭

이는 윤수가 죄값을 치렀기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다. 죄는 그에 상응한 죄값을 치르면 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윤수는 다시 예전의 윤수로 돌아오고, 자신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린 소견이다. 하지만 놀림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다. 급기야 윤섭이는 학교에 가기를 포기한다. 윤섭이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런 윤섭이를 보면서 윤수는 자신의 죄를 떠올린다. 윤수는 사생아인 경후를 괴롭힌 적이 있다. 윤수는 이런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모든 것이 용인되는 수치심이 없는 무리 안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서슴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¹⁶⁾ 그러므로 현재 윤섭이에게 가해진 형벌은 과거 윤수가 저지른 악행의 죄값을 대신 받는 과보와 같다. 윤수는 자신의 이중 죄파로 인하여 윤섭이가 고통받는 것이 침통하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잘못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돈이 있는 자가 어른이다. 이렇게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돈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면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는 죄인이 되기 쉽다. 바야흐로 달내골은 수치심이 없고 양심이 무가치한 세계가 되었다. 특히 금점판이 벌어지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이들이 달내골의 풍속을 훼손하기 시작한다. 달내골은 점차로 대국의 논리를 빙자하여 잇속을 추구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퇴락해간다. 대국의 논리에는 개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폭력성이 담겨 있다. 하감역 이외에 달내골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졌지만 이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팔자로만 돌린다.

16) 이기영, 『문학론』, 풀빛, 1992. 경후가 당한 악행의 일부는 이기영이 유년기에 실제로 당했던 에피소드다. 일명 붓 사건으로 유복한 아이가 붓을 잃어버리자 제일 가난한 이기영이 붓도둑으로 몰려서 못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일이다. 이 사건은 어린 나이의 이기영에게 수치심과 충격을 주었던 일로 이기영은 새삼 이런 경험이 소설 습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시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근대적인 시간의 비가역성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경준은 금전이 우위가 된 시세에 따라 딸을 재력가인 하감역의 집으로 시집을 보낸다. “시대를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옳고 또 성수도 떠는 법”(69)이라며 문중의 어른들을 설득한다. 그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금광에도 손을 댈다. 하지만 치성곶까지 드린 금광은 망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딸도 이 여파로 자살을 하기에 이른다. 작가는 시대에 따라서 금전을 쫓고자 했던 유씨 일가의 몰락을 통해서 ‘금전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로써 시대를 추종하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시대와 다른 흐름,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개지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른다. 이는 한 문장에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서술에서도 볼 수 있다. 한쪽에서는 땅을 파헤치는 기계의 모터 소리가 요란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노랫가락이 흘러 나온다.¹⁷⁾ 전자에 속하는 근대적인 시간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현물화되어 계산된다. 이 시간을 사는 하상오가 혈값에 사들인 땅은 현재 아무나 살 수 없는 고가의 땅으로 돌변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대변하는 하감역에게 시간은 돈이다. 그는 돈과 관련되지 않는 일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감역의 노동관은 가난을 증오하고 부만 추구하는 맹목적인 활동에 가깝다. 여기에는 선악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 하감역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반면에 후자에 속하는 자연적인 시간은 계절의 변화로 감지되며 우주론적인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흘러간다. 윤수는 금을 캐고자 파헤쳐지는 땅이 아깝다. 그의 몸에는 “농부의 본능”(118)이 흐른다. 그는 도시의 근대인이 아니라 시골의 원시인이다.¹⁸⁾ 윤수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지

17) 127면. 발동기에서는 기계소리가 팡팡팡.....하고 요란스러운 대신에 두레질로 물을 푸는 데서는 노래를 불러가며 유장(悠長)한 원시적 기분을 낸다.

않고 돈이 안 되는 일(야학, 진흥회)을 주도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찰의 시간(명상)을 즐긴다. 이 시간은 반생산적인 생산이다.¹⁹⁾ 유물론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나눔의 여유를 생산한다. 가령 낚시가 그렇다. 낚시를 하는 윤수에게 사람들은 파는 것이냐/팔았느냐고 물어보지만, 윤수는 팔지 않는 것/팔지 않았다고 답한다. 윤수는 생선을 팔지 않고 그냥 준다. 생선은 현금이나 현물로 바뀌지 않지만, 모두에게 선물이 된다.

윤수가 깨달은 노동의 가치와 하감역의 금욕주의적 노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윤수는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행위로서 노동을 추구한다. 이 노동관은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고민이 수반된 결과다. 그래서 윤수는 동네 사람들이 ‘수가 났구나’하고 부러워하는 행태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한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행동한 것도 아니거니와, 이를 빌미로 얻는 보상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윤수에게 노동의 가치를 추동한 것은 퇴폐적으로 놓고 있는 읍내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하는 자신들을 하대하고 모욕감을 준다. 특히 하상오는 하층민을 경시하는 허위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경후 모자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 윤수는 이 점을 참지 못하고, 유경준에게 하상오의 과실을 말한다. 윤수가 보기에 하상호는 촌락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훼손시키며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범이다.

윤수가 직접 나서서 하상오에게 대적하거나 학생어미를 벌주지 않는 것은 그의 한계일 수 있으나, 그렇기에 현실적이다. 윤수는 전면에 나서서 부도덕한 악인을 징벌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소작농의 아들이자 전과

18) 이상적인 인물인 월숙은 평탄한 미래를 약속해 줄 유복하고 평범하게 자란 김형규보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가졌으나 죄의 관문을 거쳐서 단련된 강윤수에게 감정적으로 끌린다. 김형규가 근대적인 인물이라면 강윤수는 원시적인 인물이다.

19) 반생산적인 생산에 대한 사상은 질 들뢰즈(Deleuze, Gilles), 펠릭스 고틀리 공저,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옮김, 민음사, 2014.

자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징벌한다. 학생어미의 악행을 빚댄 이야기를 경후에게 들려주거나, 아직까지는 실세인 유경준에게 하상오의 과실을 알리는 것이다. 윤수는 비범한 영웅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성을 획득한다.

반면에 월숙은 윤수에게 “숭고한 감정”(335)을 느낀다. 숙근이를 구한 윤수는 월숙에게 작은 영웅이다. 전과자라는 허물마저도 윤수를 비범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인이 된다. 윤수에게 환상을 가진 월숙은 이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소설책에 나올 법한 인물로 윤수를 바라보고,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월숙은 영웅적인 행위를 한다. 그것은 아버지를 벌주고 경후 모자에게 속죄하는 일이다.

4. 미래를 위한 속죄의 시간

월숙은 경후가 이복동생임을 안 순간에 일종의 수치심을 느낀다.²⁰⁾ 월숙은 『고향』의 갑숙과 같이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갑숙이가 희준과 소작농의 편에 섰듯이, 윤수와 경후 모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월숙이가 적극적으로 비가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는 상당히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이다.²¹⁾

20) 월숙은 윤수에게 집안의 치부를 들킨 것이 수치스럽다. “자기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친 것 같은 육친(肉親)간의 부끄럼이 타오른다.”(356)

21) 이는 『치너지』에서 솔로민이 협동조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실행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또한 공장지배인인 솔로민이 인색한 공장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대목도 환기된다. 이기영이 매료된 투르게네프의 이상화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기영은 현실을 고려해서 가능한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치심,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야비한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감역은 머느리가 자살을 시도하고, 둘째 아들이 비행을 저지르자, 이러한 행태를 떠나서 자기 대에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볼지도 모른다는 “망조”에 분통을 터뜨린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망조의 근원은 하감역의 “불합리한 혼인” 결정에 있었다. 이로 볼 때 현재의 망조는 하감역이 자초한 일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죄에 기인한다. 죄로 얽혀있는 하씨 집안의 최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월숙이다. 월숙은 속죄를 통해서 이 상성을 확보한다. 월숙은 현재에 과거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보복”이 따를 것이라 본다.

또 설령 아무리 창피한 일이라도 저질러 논 일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죄를 지구 벌을 두려워서 숨긴다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요. 그만큼 벌을 받을 때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니까..... 할아버지, 저는 운명이 있다는 건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과보응이란 있는 줄 압니다. 아니 없다 해도 그건 있는 게라구 믿고 싶어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나 가만히 그 뒤에 보면 영락없이 보복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일만 보십시오! 애비의 죄를 자식이 밝히려구! 양심은 제게다 그 일을 명령한 줄 압니다. 만일 저나 할아버지께서도 이 일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벌을 좀 더 크게 받을 줄 압니다. 할아버지! 참으로 경후나 경후의 모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집에는 더 큰 죄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다구 또한 실례로 작은 아버지를 두구 보십시오. 불합리한 혼인에는 반드시 파탄이 생기는 법인데.....(390).

월숙은 유경준이나 학성어미에 의해서 머지않아 발생할 풍파를 막고자 자신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는 양심의 명령을 따르려는 의지와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월숙은 아버지를 응징하지 않으면 자신 또한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부류일 것임을 직감한다. 부친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면 창피하겠지만, 부친의 죄를 대신해서 경후 모자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대속자 월숙은 전과자 윤수와 달리 선악을 단호하게 나누고 학성어미를 포용하지 않는다. 월숙은 엉클어진 가계를 바로 잡되, 인과응보의 정의를 실현하여 학성어미에게 득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것은 경후와 학선을 파혼시키고, 경후를 윤순과 맺어주는 일이다. 경후와 윤순의 결혼은 월숙과 윤수가 한 집안으로 결합할 여지(새로운 미래)를 열어 준다.

하상오의 죄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월숙과 대조적인 인물이 하상철이다. 그는 이 일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연대의식이 없다. 그저 죄의 경중을 논하며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형에게 혼났던 것이 억울하고, 이번 일로 자신의 죄는 경감될 것이니 오히려 잘되었다고 볼 뿐이다. 하상오를 비롯하여 하상철이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실리만 추구하는 행태는 하씨 집안에서 월숙이가 유일하게 양심이 있는 이상적인 인물임을 입증한다. 이렇듯 이상적인 인물의 이상성은 수치심에 대한 자각과 양심의 수호를 통해서 확보된다.

이상적인 인물들은 고정된 자리를 이탈하여, 경계를 허물고, 장벽을 넘어서 뒤틀린 시간(과거의 과오)을 바로잡고자 한다. 전과자는 마을의 영웅으로 바뀔 수 있고, 유곽의 여성은 본인의 의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생아가 본래의 자리를 찾아서 왕자가 되는 동화도 실현된다. 경후는 하씨 문중으로 들어가서 하씨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한계일 수 있으나, 동시에 가능성이기도 하다. 경후는 하상오와 다른 하경후가 될 것이다. 하씨 일가의 중추인 하감역과 하상호가 다른 것처럼,²²⁾ 부르주아로 일반화할 수 없는 다른 층위(월숙과의 친밀성)를 확보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하감역은 사생아 경후를 혈육으로 맞이하는 예식에서 목사를 초대하여

22) 이상경, 앞의 책. 하감역은 전통적인 장사꾼인 반면에, 하상오는 왜곡된 자본가의 상을 한 위 선자다.

설교를 청한다. 목사는 그동안 외면받았던 경후의 사정과 정반대로 집을 나간 탕아가 무사히 귀환한 것으로 왜곡된 해석을 한다. 목사의 설교는 어떠한 경로로 경후가 아버지가 현존하는 사생이라는 모순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생략함으로써 하씨 일가의 만행을 덮는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적인 시간관은 경후의 아픈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로지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하씨 일가에 편입된 경후는 하감역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하씨 일가의 집을 도맡아보는 실무를 맡는다. 이로 인해 어제까지 멸시의 대상이었던 경후 모자는 일시에 승배의 대상으로 역전된다. 사람들은 경후가 소작권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보고 그에게 아부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달내골 사람들은 점차로 돈이 사람보다 귀하다는 전도된 가치를 섬기기 시작한다. 윤수는 가난한 이들은 창피를 모르기 쉽다고 말한다. 이렇듯 먹고 사는 일이 가장 다급한 순간에는 수치심이 자리할 수 없다.

5. 뜻밖에 정지된 시간과 죄의식의 지속성

이기영은 회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회상은 “애초에는 별것이 아니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기법이다.²³⁾ 윤수는 과거에 학성이와의 물싸움을 회상하고, 경후를 괴롭혔던 유년기의 죄악도 떠올린다. 윤수는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이 과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특히 순남이는 자기로 인해 유곽 여자로 전락했다고 본다. 윤수는 징역을 산 것보다 순남이를 잃은 것이 원통하다.

윤수는 순남이의 편지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말한 ‘수’가 난 것을 생각해보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만다. 윤수는 하감역을 설득할 수

23) 제라르 즈네뜨(Genette, Gérard), 『서사담론』, 권택영 옮김, 교보문고, 1992, 45면.

있는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한다. 숙근이를 빌미로 돈을 빌리는 일은 가당치 않고, 구구한 사정의 하소연은 결국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비열한 수단”(330)이다. 순남이와 관련이 없다면 사욕과 무관하겠지만, 정작 관련이 없다면 순남이를 구할 명분도 없다.

그렇기에 윤수는 순남에게 편지를 쓸 뿐이다. 윤수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한다. 현재의 순남이는 꽃다운 청춘과 이름을 잃은 채 금향이 되어 있다. 윤수는 일부러 금향이 된 순남이에게 순남이라는 이름을 불러준다. 그것은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라는 뜻이다. 윤수는 순남이가 잃어버린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덕론을 설명하는 편지를 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비극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책임이다. 윤수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도덕론을 설파한다. 그러므로 순남이는 유곽 여자라는 이유로 가책을 받거나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의식, 자유의지, 도덕적 자각’이라는 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순남이는 무지한 상태에서 부모의 억압을 받아 충동적으로 유곽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순남이는 무고하다. 순남이는 편지를 통해서 “무자각(無自覺)”(144)한 생활을 살았던 자신을 자각한다.

사람이란 참으로 약한 동물이라 할까 — 아니 그보다는 길들이기 쉬운 동물인가 보다. 그는 하루 이틀 지나는 중에 어느덧 오늘날과 같이 그것이 심상히 여겨졌다. 세월은 그동안에 몇 해가 흘러가고 피어나는 인생의 꽃봉오리는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아서 시들고 말아버렸지마는. 그런데 **뜻밖에** 윤수가 찾아왔다. 이미 시들은 꽃이거니 그를 만나기로 끊긴 인연을 어찌 다시 이룰 수가 있으랴마는 죽지 못해 하는 짓이 하루를 넘기기가 지극하니만큼 **새삼스레** 답답증이 나고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게 한다. (강조는 인용자)

“뜻밖에” 등장한 윤수는 금향이를 휩쓸고 가는 근대적인 시간을 ‘순간

적으로' 정지시킨다. "뜻밖에"라는 부사는 예상되는 행로나 예정된 시간을 절단한다. 이 맥락에서 "뜻밖에"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과거를 다시 유동하게 하는" 부사어인 '어쩌면'과 상통한다.²⁴⁾ "뜻밖에"라는 시간을 전환하는 부사는 '어쩌면'이라는 잠재적인 미래의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를 데려온다. 윤수의 방문은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이다. 이 사건은 금향이 '어쩌면' 다른 여성으로 변모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새삼스레" 이제까지 억눌리고 잠재되었던 울분이 돌출되었기 때문이다.

순남이는 유곽 여자인 자신을 타자로 인식하고 그 스스로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이 순간은 갑자기 지배적인 역사에 '돌출'한 '순간'과 같다. 순남이는 윤수와의 재회를 계기로 예전의 순남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녀는 "현재만을 고정(固定)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사에 병통"(143)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현재의 순남이는 유곽의 여성으로만 고정되어 있다. 순남이는 이렇게 정체된 자신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품지 못했지만, 윤수와의 재회를 계기로 그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면서,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상상을 실현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과거(고향)로 가는 일이다.

월숙이는 하강역의 자본력을 빌려서라도 순남이를 구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돌하고 유치한 행동"에 불과함을 자각한다. 순남이는 현재의 고달픈 상황으로 불행하지만, 자신 또한 긴장 없는 생활 속에서 불행하다. 오히려 윤수를 사랑하는 순남이가 윤수와 우정밖에 교류할 수 없는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월숙은 "불행한 순남이가 자기보다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불행한 자기가 불행한 순남이를 진심으로 구제할 수는 없다. 순남이는 가슴속에 윤수를 품고 있는 한, 언젠가는 윤수를 만날지도 모를, 그런 "내일의 희망"을 안고 현재의 불행한 시간을 견디는 '위대한 자'다. 하지만 이는 순남이를 위대한 불행을 겪어낸 자로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 순남이는 "희망과

24) 고병권, 『다이너마이트 니체』, 천년의 상상, 2016, 86면.

동경”으로 귀향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침 북행차가 올라간다. 윤수는 무심히 차길을 건너다보았다. 순남이가 저 길로 갔으려니 생각하니 **불현듯** 가슴이 뭉클해진다. 월숙이도 그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차길을 내다보았다. **차는** 철교를 순식간에 건너서 장승박이 뒷고개로 **쏟살같이** 달아났다. (강조는 인용자, 450-451.)

윤수는 “영원히 풀지 못할 오해”로 순남이에게 불행감을 주었다는 죄책감이 든다. 자신이 원망을 받는 것보다, 순남이가 불행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결과에 죄책감을 느낀다. 윤수는 순남이를 구하지도 못했고, 의도치 않게 순남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 순남이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킨 탓이 크다. 어느덧 윤수는 순남이의 구원을 포기하고 있었다. 순남이가 간 곳을 안다고 해도 그녀를 구할 방도는 없다.

순남이를 구원할 수 없는 윤수는 이 현실을 잊고자 노동에 매진한다. 월숙은 그런 윤수를 응시하며 윤수가 짊어진 짐을 외면하지 않는다. 순남이의 오해에는 윤수만이 아니라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교차된 눈빛 속에는 사라진 순남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의식이 놓여 있다. 윤수의 가슴을 치는 것은 월숙의 응시가 아니라 “불현듯” 찾아온 정지된 시간이다. 근대적 시간을 상징하는 북행차는 쏟아져 내리지만, 윤수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순남이에 대한 죄책감을 환기하는 기억의 시간 앞에 멈춰선다.²⁵⁾

부연하자면 윤수는 월숙이에게 ‘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기 전부터, 작품 초반부터 학생의 묘지에서 순남의 편지를 읊으며 울었던 것처럼 자

25) 이 맥락에서 죄의식은 기억의 보존이라는 윤리적인 행위와도 연계된다. 이에 관해서는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그린비, 2019, 47면.

신 때문에 ‘순남이가 불행해졌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운수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순남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물론 감옥에서 쫓겨났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배태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귀향 후의 운수의 행동은 이러한 죄책감을 끝없이 연기하고 밀쳐둔 것이다.

그 끝에 죄책감을 일깨우는 순남의 편지, 특히 마지막에 원망이 담긴 편지는 운수에게 이제 무의미한 편지가 된다. 그래서 월숙에게 건네주고 이 편지를 없애도 된다고 말한다. 운수에게 끝없는 죄의식을 자극할 뿐, 이 죄의식을 벗어날 방도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순남이를 구원하려면 하감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친일자본을 상징하는 하감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비굴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과 같다. 운수는 비굴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에 동조하지 않았던 월숙이 또한 고통을 위대함으로 치환하여 위대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더 큰 행복이 올 것임을 자부한다. 하지만 월숙의 표정은 힘이 넘치지 않고 암울하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각한다. 그래서 운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갈망은 운수를 향한 강한 “응시”로 나타난다.

이때 ‘순남의 편지’를 대신하여 ‘순남의 응시’를 보여주는 북행차가 등장한다. 기적소리는 신개지의 정적을 깨고 끝없이 지연된 해결이 불가능한 순남이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개간공사에만 착수해야 하는 근대적 시간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 앞에서 머뭇거리는 ‘정지된 시간’을 갖는다. 그 결과 만주로 팔려간 순남이는 달내골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순남이를 구원할 수 없었던 남은 자들의 ‘죄책감의 시간’으로 남는다.

역사화되지 못한 순남이는 여담(소문)을 통해서 비이성적인 시간의 사건을 일깨워준다. 그 사건은 순남이를 퇴락하게 될 불행한 시대의 희생물

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여자’로 와전시킨 부끄러운 일이다.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보다 돈이 양반이 된 세상, 인정과 의리보다 돈을 맹신하는 시대, 돈만 있으면 과거의 허물도 없어지고, 돈을 밝히는 것에 수치심도 없는 세태를 비판한다. 유경준이 뒤늦게 깨달은 “현금주의”가 된 세상은 이들이 바꿀 수 없고 수궁할 수밖에 없는 현재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윤수는 돈을 추종하는 “공리심”이 싫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되지 않고자 한다. 적어도 수치심을 아는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

봄동산에서 쫓겨난 순남이는 죽을 때까지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순남이를 팔 수밖에 없었던 김선여와 구하지 못한 윤수와 월숙 또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비열한 하상오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작가는 이를 위해서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역사가 아니라 모두가 잊어버린 역사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짓는 개의 시간’을 기술했다.²⁶⁾ 역사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저 실증적인 수치와 통계로 만주로 팔려간 처녀들을 집계할 뿐이다.

이러한 역사에 맞서는 ‘짓는 개의 시간’의 기록은 이 맥락에서 ‘反역사’이기도 하고, 쫓겨나온 봄동산의 시간을 그리는 회고의 기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망각해버린 수치심과 죄의식을 일깨우는 ‘어찌면’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의 기록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를 담아낸 『신개지』는 『고향』으로부터 진화한 소설이다. 김희준은 강윤수로 퇴행한 것이 아니라, 김인동이 강윤수로 진화한 것이다. 강윤수는 포스트 김인동이다. 『고향』에서 농사만 지었던 인동이는 『신개지』에서 공사현장의 막노동꾼으로 변신한다. 개구리 알이 올챙이로,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한 것처럼 살아남기 위한 진화론에 따른다.

26) 『신개지』에서 개가 짓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온다. 그것은 귀향한 윤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낮선 사람인 양 마구 짖어대는 개다. 이렇게 ‘짓는 개의 시간’은 소설가에게 있어 필수적으로 재현되어야만 하는 “반사실적 역사”의 시간을 대변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레이엄 하먼(Harman, Graham), 『비유물론』,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235면.

다만 이기영식의 진화론은 적자생존론이 아니라 “공생”이다.²⁷⁾ 다행스럽게도 순남이에 관한 죄의식은 윤수만의 몫이 아니다. 윤수가 불현듯 기차를 쳐다보자, 월숙이도 따라서 기차를 쳐다본다. 이로써 작품 말미에서야 작품 초입의 달내골의 기차가 물건을 운송하고 문명을 불러오는 매개가 아니라, 순박한 시골 처녀를 데리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어딘가로 내다버린 폭력적인 시간의 입구임이 폭로된다. 윤수는 월숙이와 ‘함께’ 그 시간의 입구를 응시한다. 이는 윤수와 월숙이가 근대의 일방적인 질주에 그대로 휩쓸려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준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가더라도 ‘불현듯’ 잠시 머뭇거릴 것이다. 그 입구로부터 ‘물러서’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실패할지라도, 실패를 무릅쓰고 작가가 그려내고자 했던 이상적인 인물에 대한 고집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²⁸⁾ 이상적인 인물은 철의 시대를 지배한 최상의 가치인 돈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이다.²⁹⁾ 이 글에서는 『신개지』를 통해서 이기영이 자신의 강점인 농촌생활상의 재현을 토대로 자신이 새롭게 내세운 창작기법으로서 이상화를 추구해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기영은 시대적으로 제약된 계급성을 대신하여 마르크스적인 사회철학에서 칸트적인 도덕철학으로 관심사를 옮겨서 작품

27) 위의 책.

28) 이기영은 갑숙의 평가를 통해서 그가 전형적인 인물의 구현에 실패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현실적인 인물을 지속해서 추구해왔다. 그 결과물이 갑숙에 상응하는 금향이와 월숙이다. 그녀들은 실패할지라도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

29) 이들은 돈이 아닌 인간 본위의 가치를 발견한다. 이를 통해 인간적인 행위를 실행한다. 월숙 이는 경후 모자를 동정심이 아닌 인간적으로 대등하게 여기며, 금향이는 돈만 밝히는 술집 주인과 반대로 유경준의 술값까지 떠안는다.

에서의 윤리성과 이상성을 강화했다.

『신개지』에는 유독 죄의식과 수치심에 대한 언급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고향』, 『인간수업』, 『신개지』, 『봄』에 이르는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변치 않을 인간의 가치에 대한 발견과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긍정을 보인다면,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신개지』만의 독자성은 ‘죄와 속죄’의 문제 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이상적인 인물은 수치심을 알고 속죄할 줄 아는 인간이다. 이들은 죄의식이 없던 황금시대인 봄동산에서 쫓겨난 후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간다. 철의 시대에 이르러 달내골의 순결성을 상징했던 순남이는 최소한의 수치심마저 박탈당한 채 유곽의 노예가 되어 훼손되고 만다. 이 사건은 윤수에게 강한 충격과 죄책감을 주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순남이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로써 윤수는 죄책감을 지닌 달내골의 마지막 인간이 된다. 어쩌면 작가가 이상적으로 구현한 인물은 “완전한 인물”로서의 윤수다. 그리고 주지한 것처럼 월숙이다. 이들은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운명을 지닌 자들을 향한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에 이들은 앞으로만 질주하는 근대적인 시간의 폭력성을 응시하고, 이 입구에서 응전의 자세를 취한다. 그것은 근대적인 시간과 가치(시간이 돈이다)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낚시하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금전화하는 근대적 시간과 거리를 둔다.

이기영이 추구한 이상성은 억압된 현실을 전복하는 시대적으로 차단된 계급 투쟁을 대신하여, 실리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이기영은 『고향』을 연재하던 중, 1934년에 제2차 카프 검거 사건으로 1년간 투옥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그의 자유로운 문학적 세계관을 억압하고 연기해 둘 것을 강요했다. 이는 계급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고향』의 생명력을 보여주었던 농촌문제와 풍경이 빠지거나(『인간수업』), 문제적인 인물의 불완전한 자아가 누락되었다(『신개지』). 『인간

수업』에는 계급문제를 다룰 생산 현장이 없고, 『신개지』에는 계급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러므로 지주와 소작농, 일제와 마찰 등 지배 계급과의 갈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혁명의 시작과 끝을 본 이기영의 입장에서 혁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형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잔여로 남는다. 이기영이 주안을 둔 것은 혁명의 지속성이다. 이기영은 『고향』에서와 같이 『신개지』에서도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논지를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³⁰⁾ 그리하여 계급성 대신에 윤리성과 이상성이 강화되었다. 월숙은 부친의 죄를 대신하여 경후 모자를 포옹한다. 월숙은 순남의 경우에도 하감역의 도움으로 구하고자 한다. 이렇듯 그녀의 이상성은 모든 일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완벽한 낙관주의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이상성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오만에 대한 자각이다. 월숙은 문득 이렇게 구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다가, 본인이 순남이의 행복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본인이 순남이의 자유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감이 있는 운수에게 인정받고자 했음을 시인한다. 순남에 대한 동정과 호의는 순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산된 월숙의 행위는 월숙이가 현실의 물정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기보다, 현실의 논리에 빠삭한 실리주의자임을 보여준다.

순남이는 그녀 스스로만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순남이는 팔려 갔다기보다 원한으로 유곽에 들어가며,³¹⁾ 추후에 유곽에서 나오고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한다. 그 결과 원산을 거쳐 달내강으로 기생의 신분이지만 귀향하는 데 성공한다. 마지막에서 만주행 또한 그녀가 자발적으

30) 『신개지』가 친일적이라는 혐의를 벗는 방법은 『신개지』를 전작 『고향』과의 상관성을, 주제의 지속성과 작품관의 일관성을 살피는 것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는 『신개지』와 유사한 모티프를 지니고 기술된 『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노연숙, 『이기영의 『봄』에 재현된 저항의 양상 고찰』, 『시민인문학』(Vol.38), 인문학연구소, 2020. 2. 28.

31) 여기에도 죄의식이 관여되어 있다. 첩으로 가라는 강권을 거절한 것은, 첩은 누군가(본처)에게 죄를 짓는 것이므로 차라리 술집 여인이 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녀의 선택지는 오로지 자살, 살인, 도피 이 세 가지 뿐이기에 차선책으로 만주로의 도피를 실행한 것이다.

순남이는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사랑에 대한 망상이 깨진 후에 죽음을 대신한 만주행을 택한다. 그러나 만주행은 죽음과 다르지 않다. 순남이는 달내골 출신의 순남이일 때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신개지』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매우 드물게 나온다. 순남이는 어쩌면 “자유 의 몸”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순남이가 돌아가고자 했던 황금시대의 봄동산은 이미 소멸한 지 오래다. 순남이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돌아갈 곳이 없다.

월숙은 순남이가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현재의 불행을 견디는 위대한 자라고 본다. 그러므로 순남이가 짊어진 것은 ‘위대한 고통’이다. 이 고통의 일부는 대속으로 나타난다. 순남이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만주로 팔려간 것이다. 이로써 작가는 희망이 차단된 미래에 다시금 희망의 여지를 남겨둔다. 하지만 이는 미화된 희망이다. 순남이의 본심인 “왈각” 쏟아진 울음이 ‘돈이라도 많이 벌겠지’하는 왜곡된 위안으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순남이가 동경한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순결한 과거다. 순남이는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몸값을 늘려가면서 과거로 이동하고자 했다. 이는 자본을 추종하는 근대적인 시간에 대한 역행이다. 순남이는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없다. 유곽은 돈을 요구하는 부모의 등쌀에 최후로 밀려난 곳일 뿐이다. 이로 볼 때 『신개지』는 과거를 위한 죄와 벌의 서사다. 현재는 훼손되었으나, 과거에는 순결했던,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던 시원적 시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작가는 특유의 고집으로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

1. 제1차 문헌

『동아일보』, 『조선지광』, 『풍림』

이기영, 『新開地』, 풀빛, 1989.

이기영, 『문학론』, 풀빛, 1992.

이반 투르게네프(Turgenev, Ivan Sergeevich), 『처녀지·루딘』, 김학수 옮김, 범우사, 2001.

2. 제2차 문헌

1) 단행본

고병권, 『다이너마이트 니체』, 천년의 상상, 2016.

이상경, 『이기영-시대와 문학』, 풀빛, 1994.

그레이엄 하먼(Harman, Graham), 『비유물론』,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란다 사브리리(Sabry, Randa), 『담화의 놀이들』, 이충민 옮김, 새물결, 2003.

마르트 로베르(Robert, Marthe),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김치수·이윤옥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9.

제라르 즈네뜨(Genette, Gérard), 『서사담론』, 권택영 옮김, 교보문고, 1992.

조르조 아감벤(Agamben, Giorgio), 『유아기와 역사: 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조효원 옮김, 새물결, 2010.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강경덕·김제서리아 옮김, 그린비, 2019.

질 들뢰즈(Deleuze, Gilles), 펠릭스 과타리 공저,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옮김, 민음사, 2014.

2) 논문

김경원, 『『신개지』의 동참 체험과 리얼리즘의 성취』,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1992.

김병구, 『이기영의 장편소설 『신개지』 연구』,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 언어학회, 2015.

김철, 『프로테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한국문학연구』 (제3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김한식, 『이기영 장편소설 『신개지』 연구: 교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

- 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김현주, 「장편소설 『신개지』의 실험적 기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 _____, 「창작배경 재조명을 통한 신개지 재고」,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3.
- 노연숙, 「이기영의 『봄』에 재현된 저항의 양상 고찰」, 『시민인문학』(Vol.38), 인문학연구소, 2020.
- 황지영, 「식민권력의 외연과 소문의 정치」,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13.

<Abstract>

A narrative of sin and punishment for the past
—Focused on Lee Ki-young's “Shingaeji”(1938)

Roh, Yeon-Sook

In this article, Lee Gi-yeong's “Shingaeji” was to examine the tim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n connection with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person. “Shingaeji” is a work that persistently deals with the problems of guilt and shame. The work never puts down the problem of guilt from beginning to end. Through the act of carrying a sense of guilt, we intend to preserve the memory of those who lived an unfortunate fate in an unhappy era. The author strengthens the morality and ideal of the work in a situation where the expression of class is blocked.

The main characters of this show are Kang Yoon-soo, Ha Wol-sook, and Kim Soon-nam. They show the time of idleness, the time of atonement, and the time of Kairos against the iron age dominated by money. In particular, Sun-nam wants to go back to his innocent past in search of his lost name and love. This attempt is delayed and frustrated in the face of the modern sprint of time, but leaves guilt for the rest. As long as one wishes to remain an ethical human being, no one can be free from guilt. Therefore, “Shingaeji” is an epic of sin and punishment for the ethical human being who failed to save Sunnam, for the past.

Key words: Lee Ki-young, *Shingaeji*, guilt, shame, modern time, time of idleness, time of atonement, Kairos

투 고 일 : 2020년 7월 24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